

‘엄마의 계절’, 나는 괜찮다!

문화향기

심명자

대한독서문화예술 협회 이사장



설 명절이 되면 설빔을 입고 어른들에게 다소곳이 세배하며 세뱃돈을 받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오른다. 친척 어른들에게 새해 인사를 드리기 위해 어린 우리들의 손목을 잡아끌던 부모님의 채근 소리도 귓가에 맴돈다. 코로나 19의 규제가 끝나고 편히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명절이 돌아왔지만 시골벽적하던 옛 모습을 보기는 쉽지 않았다. 명절이라도 자식들을 만날 것을 기대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오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는 부모들은 쓸쓸하고 서글프기 그지 없다.

그림책 ‘엄마의 계절’ (작가 최승훈, 이야기꽃출판사, 2021)에는 대대손손 이어져 내려오는 우리나라 어머니가 그려져 있다. 경북 예천에서 나고 자란 작가가 고향집의 어머니를 고스란히 책에 옮겼다. 사계절의 어머니의 일상을 실사 그림으로 그려 마치 곁에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그림책 속 어머니는 늘 도시에서 사는 자식들과 손주들을 기다린다. 어쩌다 온다는 소식이라도 들으면 맛있는 거 먹이려고 전도 부치지만 사정이 생겨 못 온다는 말이 휴대폰을 타고 들려온다. 어머니는 못내 서운하지만 자식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나는 괜찮다’고 씩씩하게 말한다. 만든 음식을 마을 사람들과 나눠 먹으려고 몽땅 싸서 이내 마을 회관으로 향한다. 여름에 마늘 껍 때, 가을에 농작물을 거둘 때 어머니는 자식들이 행여나 울까 하고 기다리지만 오지 않는다. 호젓한 나날을 보내는 어머니는 자식과 전화 통화할 때만큼은 여전히 목소리가 씩씩하다. 김장 김치 담그는 겨울이 돼야 자식들과 손주들을 품에 안은 것인지 방 안에서 웃음 소리가 번진다. 얼었던 어머니의 마음도

풀려 훈훈하다.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 평생 힘든 묵수 일을 묵묵히 해낸 그림책 ‘아버지의 연장 가방’ (지은이 문수, 키워북스, 2021)에는 아버지의 자식 사랑이 그려져 있다. 부모는 원래부터 어른이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자식들은 부모에게도 어린 시절이나 고뇌가 가득 찬 청년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가계를 이루면서 자신이 책임져야 할 가족들을 위해 아무리 힘들어도 곳곳이 살아낸 아버지의 삶을 알리었다. 아버지는 늙어 힘이 없어지고, 외롭게 지내지만 평생 함께 해온 연장가방을 버리지 않는다. 감감한 새벽에 나가서 어둑한 밤까지 일을 하다 돌아오던 아버지의 시간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삶의 흔적이기 때문이다.

알을 깨고 나오는 아기 물고기들이 먹을 것이 없어 죽을까 봐 자신의 몸을 먹이로 내주는 ‘가시고기’와 부모의 존재는 비슷하다. 자식들 마음 고생 시키지 않으려고 고달픈 상황에 자신을 내던지고도 하나도 힘들지 않다고 한다. 자식들 역시 삶이 녹록지 않아서 부모님을 살뜰히 섬기기는 쉽지 않다. 부모를 섬기는 마음이라도 간직하는 것마저 고리타분한 옛이야기로 남고, 어쩌면 장차 살아갈 후손들에겐 사라질지도 모를 일이다.

청소년이 분노 조절을 못해 훈육하는 부모를 폭행하거나, 병든 부모를 돌볼 수 없어 요양원에 맡겨두고 무연고자가 되게 하는 일들이 너무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 고액의 보험금이라도 타서 생활고를 만회하려고 부모를 살해했다는 뉴스가 가끔 나와도 이젠 놀라지도 않는다.

고도의 산업화, 서구화된 생활, 핵가족화 등 인정이 메마르고 강박해진 이유는 넘쳐난다. 특히 일등 지상주의는 자식이 예의범절을 무시해도 공부만 잘하면 뭐든 용납되며, 집안의 상전으로 군림하게 한다. 부모에게 절대 ‘갑’인 이들이 생활 속에서 부모를 존중하는 기본을 습득하지 못한 채 어른이 됐을 때의 태도

는 불 보듯 훤히하다. 이렇게 전근대적 사고방식쯤으로 치부 당하기 십상인 ‘효’는 실상 인간애와 삶의 기본을 익히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이다.

몇 해 전, 대전발전연구원에서 ‘효사상의 현대적 의미와 실천·교육방안’을 주제로 현대인의 삶과 효의 연관성을 제시했다. 그 중 하나는 산업화와 효의 관계이다. 성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 쾌락과 탐욕을 채우며 만족을 하기 위한 돈벌이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을 봉양하고, 가정을 이끌어가기 위한 것임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효를 행하는 것은 지출이 늘어나 경제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행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한 실천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자신의 부모를 욕되게 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좌표 역할도 한다. 두 번째로 민주화와 효의 관계를 밝혔다. 민주주의 가장 기본은 평등이고, 타인을 존중하는 것이다. 부모를 섬기고, 타인을 배려함으로써 인애(仁愛)의 덕목을 습득하게 된다. 이는 인간애, 형제애, 인류애, 자연애로 이끈다.

전근대 사회는 부모 위주의 집안 풍토가 만들어지고,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을 효로 인식했다. 다소 강요가 작용된 효였지만 우리나라 고유의 효사상이 형성된 기반이 되기도 했다. 반면, 현대는 부모와 자식이라도 애정을 바탕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대등한 관계의 시대다. 요즘 가족 간의 대화 시간까지 줄어들며 아이들의 학습력을 높이는데 집중하는 부모들이 많다. 자녀의 학습이 생활이고 목표가 돼서 인간애의 형성은 차치해두기 일쑤이다. 개인주의로 살 수 밖에 없는 시대일수록 삶의 근본이자 구심점이 되는 가족애는 더 필요하다. 신 개념 효의 덕목을 이해하고, 책임감과 인애를 습득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의 심리적 거리를 좁혀야 한다. 그렇게 이어지는 가족들은 서로를 야기고 지켜주며, 적박한 현실을 살아가는데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이다.

社說

‘광주전남연구원 재분리’ 충분한 논의를

나주시장 반대 입장 공식표명

광주전남연구원 재분리 추진 움직임과 관련해 운병태 나주시장이 어제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윤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광주전남연구원은 2015년 양·시·도가 우여곡절 끝에 이뤄낸 합의의 정수의 결과물이자 혁신성을 담보하기 위한 상징적 결과물인데 이것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연구원 존립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시장은 “인위적 분리보다는 연구원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한 공청회 등 생산적 논의를 거친 후 시·도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광주시와 전남도에 촉구했다. 광주전남연구원이 소재하고 있고 관내(빛가람혁신도시 내)에 연구원 신축 부지를 확보한 단체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나 그간 연구원의 분리·통합 등의 추진 과정을 감안할 때 윤 시장의 발언에 공감하는 지역민이 많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 출연해 1991년 출범한 광주전남연구원은

2007년부터 각각 분리 운영 돼오다 2015년 이낙연 전남도지사와 윤장현 광주시장이 상생협력을 기치로 통합 운영을 공동 합의한 결과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해 10월 “통합 운영이 맞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자 전남도의회가 공론화하면서 재분리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 모양새다. 통합 8년만에 또 분리 운명을 맞게 된 셈이다. 재분리 이유는 그간 연구원 통합 시너지 효과가 기대 이하였다는 계양 지자체의 대체적인 진단이나 이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이런 일이 되풀이된 점에서 장기적인 안목과 효율성보다는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른 결정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시·도 특별자치단체와 행정 통합 등 그 어느 때보다 시·도가 상생 공동 전략을 펴야 할 시점에서 싱크탱크를 분리해 각자 도생을 도모하겠다는 심산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시·도는 연구원의 조직 개편을 하려면 종사자의 의견 수렴과 전문기관의 용역,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와 숙고 과정을 거쳐야 지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공공요금 인상 ‘심사숙고’ 해 결정해야

난방비 이어 택시 등 대기

연초부터 광주·전남 지역 물가가 심상치 않은 모습이다. 코로나19에 따른 내수 회복이 더디고 경제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물가까지 들쭉이면서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들의 시름도 높아지고 있다.

‘발등에 불’은 택시요금이다. 광주시는 오는 3월 현재 3300원인 기본요금을 최대 4300원까지 1000원 내에서 인상하는 방안을 놓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 도시가스 요금도 들쭉이고 있다. 요금의 90%를 차지하는 정부의 도매요금이 지난 해 40% 가량 오르면서 광주시로서는 소매요금까지 올리는 것은 부담이지만 오는 4월부터 인상을 위한 검토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광주시 산하 22개 공영주차장 요금도 5월부터 기존 14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주세(酒稅) 역시 역대 최대 폭의 인상을 예고하면서 이래저래 시민들의 민생을 위협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우리나라 연간 물가 상승률은 5.1%로, 외환위

기 때인 1998년(7.5%)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지난 해 말 한국은행도 소비자물가가 당분간 5% 내외의 상승률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도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여기에 각종 공공요금까지 오를 경우 서민 경제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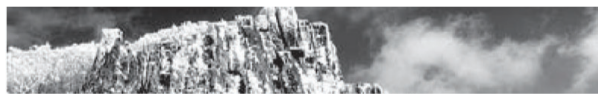
우리 경제는 지금 어느 때보다 큰 위기를 맞고 있다. 금리가 오르면서 국가 경제의 한 축인 가계의 대출 원리금상환 부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광주상공회의소도 최근 지역 소매·유통업체와 제조업체의 체감경기가 올해도 암울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유가 등 대외변수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과도한 물가 상승도 또 다른 요인이다. 특히 공공요금 인상은 소비자물가 상승을 불러오고 소비와 경기 둔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결정에 심사숙고 해야 한다. 자치단체와 정부는 거시적 안목에서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줄 물가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허리띠를 졸라 매 위기를 넘겠다는 국민들의 의지도 중요하다. 물가안정 없이는 경제발전을 기대할 수는 없다.

“특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전남일보 e-mail webmaster@jnilbo.com

전화 (062)510-0321

서석대



“만약 우리가 맞다면, 이 혜성은 1758년경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때 우리 후손들은 이 혜성이 영국인에 의해 최초로 발견되었음에 감사히 여길 것이다.” 1682년 영국 천문학자 에드먼드 핼리는 그 해 갑자기 나타난 별을 예사롭지 않게 지켜봤다. 지금까지 누구도 보지 못했던 별. 핼리는 즉시 옛 기록에 있는 궤도를 찾아 계산했고 1531년과 1607년의 궤도가 그해 나타난 별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 별이 76년을 주기로 태양계를

공상과학영화의 단골 소재이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생명의 기원을 연구하는 중요한 대상이다. 46억년 전 태양계가 탄생했을 당시 생성된 것으로 추정된 혜성은 ‘태양계의 타임캡슐’로 불린다. 얼마전에는 일부 과학자들이 원시 지구가 혜성과 충돌하면서 물과 함께 생명의 기원이 된 유기물질을 획득했다는 가설도 내놓았다. ‘혜성을 연구해 이런 물질을 발견할 경우 인류의 마지막 남은 과제인 생명의 기원을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이 과학계의 이야기다.

녹색 혜성

2021년 개봉된 영화 ‘돈 룩 업’은 갑자기 나타난 혜성이 지구와 충돌하는 위기를 그린 영화다. 갑자기 지구를 향해 돌진해 오는 직경 6~10km의 혜성. 그대로 충돌하면 인류의 종말이 예견되는 상황이고 남은 시간은 6개월에 불과하다. 하지만 정부나 관리들은 혜성이 지구와 충돌해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믿지 않는다. 대중들도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로 치부해 버린다. 영화가 이야기하는 것은 충돌의 비극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깝고, 인류의 종말마저 정지적 도구로 활용되는 우리 사회의 허상이었다.

과거 혜성은 전쟁이나 재앙을 알리는 불길한 별이었다.

새해 벽두 지구를 찾은 ‘녹색 혜성’이 매일 새벽 화려한 우주 쇼를 선보이고 있다. 5만여 년 전 네안데르탈인 시대, 지구를 지난 것으로 보이는 이 혜성은 지난 달 12일 태양의 최근접 지점을 지났고 2일에는 지구의 최근접 지점에 도달한다. 2월까지의 북극성 근처에서 이른 새벽 육안으로도 관측할 수 있다. 혜성은 태양계와 생명의 신비를 품은 희망의 상징이다. 5만년을 주기로 태양계를 돈다는 것도 경이롭다. 이번 지구로의 여행이 끝나면 앞으로 5만년 후 다시 오거나, 안올 수도 있다는 혜성. 우주에는 이런 혜성이 과연 몇 개나 존재할까. 겸손하고 또 겸손해지는 우주의 신비다.

이용환 논설위원

全南日報	시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기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www.jnilbo.com m.jnilbo.com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461	전남취재부	(062)510-0336		
	사회부	(062)510-0340	뉴스콘텐츠부	(062)510-0321		
	경제부	(062)510-0380	사진부	(062)510-0391		
구독료	월 1만원 1부 5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